



마삭줄



최명섭
임업연구원

과명 : 협죽도과
 학명 :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Nakai
 영명 : Chinese Ivy
 한명 :白花藤, 絡石,
 일명 : ていかがずら

제주도, 남해도서지방
 인 부산, 진해, 충무, 남
 해, 여수, 목포등 온난한 지방
 의 산림내 어디를 가던지 으레
 마삭줄이 지피식물로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무줄기나 들무더기, 들
 담에도 온통 마삭줄로 덮고 있
 다. 남쪽지방에서는 지피식물
 로 가장 적합한 수종이 아닐까
 생각된다.

음수이지만 양지에서도 잘자
 라며 5°C 이상에서 월동하고
 15~25°C에서 잘자란다. 내건성
 식물로 보통으로 관수하여도
 무방하나 공중습도는 약간 높
 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1 생태적 특성

남부지방의 온난한 해안
 및 도서지방의 표고 50~
 1,100m에서 바위 및 나무 위에
 기어오르는 상록활엽의 덩굴성

수목으로 길이 5m에 이른다.
 내한성이 약해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하나 난대지역에
 서는 음지나 양지를 가리지 않
 고 생육이 양호하며 내조성이
 강하여 해안지방에서도 잘자라
 고 이식력은 약하나 대기오염
 이나 맹아력은 강한편이다.

2 형태적 특성

가지는 적갈색이고 털이
 있으며 잎은 마주나고 길이
 2~5cm, 넓이 1~3cm로서 타원
 형이고 표면은 광택이 있다. 꽃
 은 5~6월에 피고 지름 2~3cm
 로서 백색에서 황색으로 변하
 고 향기가 좋으며 취산화서는
 새가지 끝에 달린다. 열매는 골
 돌(骨莢)로 하나의 심피안에 1
 개내지 여러개의 종자가 들어
 있으며 길이 12~22cm 크기로
 9월에 익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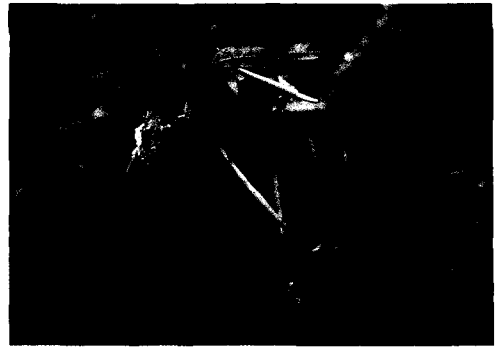
유사종으로 잎이 둥글고 큰

것을 백화등(var. *majus* Ohwi)
 이라 하고 줄기와 잎에 털이
 없고 잎이 큰 것을 민마삭줄
 (var. *asiatica* Nakai)이라고 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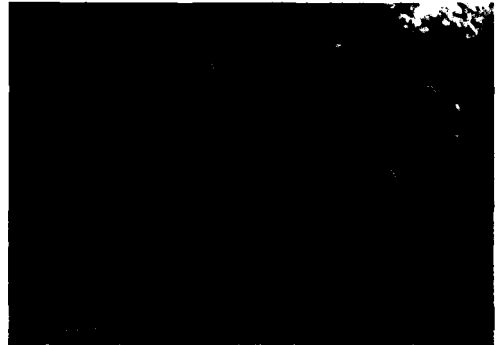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상록성의 잎에 광택이
 있고 꽃이 아름다우며 덩굴성
 식물로 담쟁이 대용으로 난대
 지역의 삭막한 콘크리트 담장
 에 올리기도 하고 정원석이나
 고목, 또는 아치등에 올리면 사
 철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
 성할 수 있다.

화분에 식재하여 덩굴을 늘
 어뜨려서 키워 불만도 하고 여
 러 가지 동물 형태를 철선으로
 만들어 그 밖에다 붙이면 재미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물모
 양을 만들 수 있다. 건물 외벽
 창가에 올려서 정원수로 이용
 하기도 한다. 내한성이 약하여



▲마삭줄 열매



▲마삭줄 지피 파복
◀고목 그루터기내 파복

식재지역이 제한을 받지만 식재가 가능한 남쪽지방에서는 매우 훌륭한 조경소재이다.

4 번식법

-종자번식:9월에 잘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음지에서 말리면 흰털이 달린 가느다란 종자가 나오는데 이 종자를 봄까지 잘 보관하였다가 파종하면 발아가 되고 어려서는 수분을 좋아 하기 때문에 적습한 곳에 양묘하여야 한다.

-삽목:봄이나 7월쯤 그해에

자란 가지를 잘라 삼목하면 발근이 잘된다.

-취목:길게 자란 줄기중 줄기의 모양이 아름다운 부분을 취목하여 분재소재로 사용하여 도 좋다.

-근주이식:산지에 자란 야생묘를 굴취하여 이식하면 되는데 이식후 수분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5 그밖의 용도

한방에서는 줄기 또는 잎을 낙석등(絡石藤)이라 하며

가을에 잎을 채취하여 물에 씻어서 진흙을 제거하고 헹잡물을 골라내어 잠시 물에 담가서 수분을 충분히 스며들게 한 후 잘라서 햇볕에 말려 거풍, 지혈, 비통, 토혈 등에 6~10g을 달여서 복용하거나 술에 담그거나 산제로 해서 사용한다. 열매는 낙석과(絡石果)라 하는데 7월에 채취하여 절골통치료에 사용한다.

오래된 굵은 줄기는 분재 소재로 이용되는데 싱싱하면서도 윤택이 나는 늘어지는 줄기와 잎과 가을에 변하는 단풍도 감상할만하다. **조경수**